協同先導하는 農民이 되자

바람직한 미래의 農民像

예산농업전문대학 학장 윤 상 현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1967년에 전체인구의 53.4%에서 10年후인 1976년에는 36.7%로 80年 初에는 30% 미만으로 감소했다. 이는 매년 50~60萬의 농민이 농촌을 떠났고 더욱이 이중 46%가 13~30才의 農村青少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離農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일이긴 하지만 근래 우리나라와 같은 급격한 감소현상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농업이 심각하게 內外的으로 부터 도전을 받아 농촌의 급격한 變化를 가져왔다. 또 농민의 農業觀도 현재 농사짓는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전망이 못할 것이라는 不安感이 이농현상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듯 싶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狀況變化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농업을 이어갈 영농후계자 확보가 어렵게 될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農業敎育 80年의 긴기간 동안에 中堅技術者 養成을 目標로 敎育하여 왔지만 과연 몇%가 농촌에 뿌리를 내렸는가? 70여 농업계 학교에서 매년 2萬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몇%가 歸農을 원하는가를 반성하여 볼때 농업교육 30여년을 한 筆者 자신도 보람을 느끼기이전에 부끄러움이 앞선다. 그러나 때때로 농촌 현장에서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弟子나 青少年과 대화를 나눌때면 都市의 유혹을 意志로 버틴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의 情을 느끼며 희망을 갖게되어 농촌을 지킬 이런 미래의 농민에게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산업역군의 긍지지닌 農民

첫째로 未來의 농민은 矜持와 포부에 찬 産業役軍이란 확신을 갖고 농업을 生業으로 선택할 때에 農業, 農村, 農民의 밝은 未來像을 定立할 것이다.

과거로 부터 우리나라의 농민은 농사꾼, 땅을 파먹는 단순노동자로 스스로 賤待하여 농민 대다수가 움추려 살아왔고 이나라의 社會發展에 마치 落悟者가 된 느낌이였으며, 국가계획에 피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총화 대열에서 제 위치를 정립하지 못하고 자칫 局外者인양 스스로 뒷전에 물러 앉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형화, 고도화 되면서 농업의 기능 또한 他產業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또 현재와 같은 機能社會에서는 과거의 一次產業的 역할 이상인 高度의 複合的 機能者로 변모되고 있으므로 農民像은 經營人으로서 格上, 尊重되어 떳떳한 企業經營家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어야 한다.

또 自主的 民主市民으로서 농민은 농촌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 총화형성 그리고 國政決定에 까지 利益集團으로서 意思反影과 영향력 行使를 民主的인 절차를 통해 능동적으로 표시하여 농민의 지위와 긍지 향상에 기여하는 미래의 농민을 기대한다.

공업화도일에 선도적農民

둘째로 농업의 生產性增大를 위한 工業化의 導入을 익혀야 한다.

未來의 농민은 단순이 傳授된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양하는 막노동자와 같은 生產行爲만으로는 장차 독립산업으로 확대, 발전할 수 없다. 우리나라 농업부분도 점차 전문화되고 산업화되어 감에따라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효율적 그리고 주체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사람만이 심한 기술경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장, 발전할 수 있다. 先進國의 例처럼 농업도 工業 발전 圖式과 같이 기술을 기초로 하여 生產工程을 조직화하고 장치화할 수 있도록 배우고 노력해야 할것이다.

협동생활에 익숙한農民

셋째로 協同生活에 익숙한 농민이 되어야 겠다.

옛부터 우리나라 농민들은 한우물 한방앗간, 품앗이등 여러가지 형태로 농민단위이던 촌락지역 또는 광역의 지역단위로 협동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여 왔다. 생활의 공동체로서 공존사회 영역에 대한 여러가지 挑戰을 협동으로 대처하여 왔으며 농가는 생산과 생활이 공존하고 있고 또 생산환경이 同一하여 생활의 공존이 중시되어 農村共同體라는 社會組織을 다져 왔었다. 또 1971년부터 마을단위로 추진해온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농촌의 오랜 역사속에서 공동체의식이 함양된 隣保相助하는 생활기풍을 기초로 영농활동에도

마을을 중심으로 협동하는 전통을 가지고 실천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급격히 변모하는 농촌사회에는 앞으로 他産業과의 경쟁, 정치적인 열세, 문화적인 침식 등 현 농업구조의 상황하에서는 농민의 약한 힘만으로는 아름다운 美風良俗들을 유지, 발전시킬 수 없다. 교통, 매중 매스콤의 발달은 농촌과 도시간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좁혀 都市的인 생활방식과 도시기풍이 무비판적으로 농촌에 수용되고 있어 전래의 소박한 농촌생활이나 농가의 氣質이 도시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들을 역력히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족중 누군가가 도시에 유출되어 우리 농촌가정의 夫婦, 親子間의 애정과 협력을 유대로한 連帶意識의 均衡을 깨뜨리고 老父母공경이라는 전래의 미풍양속을 변질시켰다.

농촌에서의 土地에 대한 애착심이라던가, 농촌 생활의 신앙심이 희박해지면서 도시의 기풍이나 생활방식이 급격이 파급되어 노동보다 오락을, 生産보다 消費를, 옛것보다 새것을, 이웃보다 나를 사랑하는 등으로 농촌생활의 매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농촌의 무분별한 도시화는 기성의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시정하기 어렵고 또한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할 것이므로 미래의 농민들이 우리마을은 합심하고, 이웃부락과는 협력하며 더넓게는 공동체단위로 협동정신을 확산시켜나갈 때만이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고, 농민의 복지가 증진 될것이다. 그러므로 未來의 농민은 서로가 협동하는 태도로 마을 고유의 민주적인 조직을 다져나가야만 농민의 힘을 강하게 키워 나갈수 있을 것이다.

비판하고 생각하는 農民

넷째로 농촌이 추하게 變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웃의 궂은일, 기쁜일이 생기면 함께 위로하고, 즐거워하며 맛있는 음식은 이웃과 나누어 먹을줄 아는 厚한 농촌의 人情이 생동하는 농촌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사치와 낭비를 수치로 알고 살아온 순박한 생활태도, 어린이는 돼지의 먹이를 주고 누군가가 달걀을 거두어드린다던가 하여 저마다 주어진 일을 성실히 이행하므로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뿌리 깊은 가족관계 등의 옛조상때부터 傳來된 아름다운 농촌이 산업화, 도시화되는 전환기적 과정에서 흉칙하게 오염되고 또 변모하는 것을 막을 수있는 批判的 思考가 바람직하다.